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순근

1995년도 전도에 관한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목회지침 생활화된 전도로 교회성장 이루어야

전도회를 통한 전도로 교구부흥이 일어나야

전도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는 전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다. 건강하고 성숙한 남여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태신자를 가져야 하고 영적자녀를 출산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전도에 대한 생각은 동일하고 심지어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온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가 그렇게 마음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생활속에서)이 있을 때, 또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도에 열심할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전도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수 사랑큰잔치도 사실은 전도운동이고 이 일



▲ 예수사랑 큰잔치를 전교인 집중 전도운동의 기회로 삼아 모두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에 열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은 최근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1980년 초부터 '총동원 전도'라는 이름으로 전교회가 전도에 열심하기 위해 실시해 온 일이었다. 이렇게 전도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각 개인이 그의 삶 가운데 꾸준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1995년도 목회방침을 발표하면서 전도에 대해 네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1. 전도의 생활화

전도가 특정한 일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 가운데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즉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여러 측면으로 가능한 모든 전도의 대상, 방법 등을 동원하여 늘 전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군전도에 관심있는 사람은 군전도를, 학원전도에 관심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직능별로 모여 그 모임이 전도활동이라는 면에서 활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각 교구마다 조직되어 있는 전도회가 자기 교구를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도회로 탈바꿈하여야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친교, 교제에서 머물던 모임들이 더 나아가 이제는 그 단합된 힘으로 전도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 명실상부한 전도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각 전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쉬임없이 유입될 때 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자연히 우리 교회의 성장과 직결되는 일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전도의 생활화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전도학교가 상설화되어 있어 전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장도 필요할 것이다.

2. 군전도와 농어촌 전도를 활발히 전개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군전도와 농어촌 전도는 교회의 성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

전도가 꼭 각 개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군이나 농어촌 전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 교회성장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전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전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

고 독창적인 군전도와 농어촌전도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예수사랑 큰잔치

교회는 금년에 세번째의 예수사랑 큰잔치를 실시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행정, 조직, 전도활동 등을 새롭게 하느라고 노력했다. 또한 예수사랑큰잔치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온 교회가 집중하여 전도하는 전도운동'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4. 전담 목사제 실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전도활동을 위하여 전도위원회 지도목사는 전도 담당업무만 보게 한다. 그리하여 각 교구나 부서에서 전도를 위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오늘 저녁, 일일 부흥회

강사 최병남 목사

교회는 12월 4일(오늘) 저녁 찬양예배를 일일 부흥회로 모이기로 했다.

강사는 대전중앙교회의 당회장인 최병남 목사로 다니엘 6장 10절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도"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 또한 대전중앙교회의 시온찬양대가 특별찬양순서를 갖기도 한다.

사랑의 쌀 저금통

12월 18일까지 모두 수거

교회는 지난 8월 말부터 시작한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교회적으로 실시한 사랑의 쌀 나누기저금통을 수거한다.

그동안 각자가 저금한 저금통을 가져오면 된다. 접수처는 사목국이나 헌금창구로 12월 18일(주일)까지 가지고 와야 한다.

교구양육위원 새교구에 따라 재배치

새가족위원회 행정부에서는 금년에 교구가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새가족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양육위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새가족 양육기록카드와 양육일지를 전체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모든 교구양육위원들은 12월 11일(주일)까지 해당 서류를 새가족위원회 행정부 사무실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분류된 새가족들은 개편된 교구에 따라 재배정을 받게 된다.

충현북방선교 세미나

오늘 오후 갈릴리홀에서, 강사에 한완상 장로

선교위원회에서는 올해의 선교사업을 결산하면서 우리 교회 선교의 중심 주제의 하나인 북방선교를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1994년 하반기 충현북방선교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재약진을 바라보면서 세계선교를 협력하며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든 성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도전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일 시 : 1994년 12월 4일(주일)
오후 2:40 - 4:00 (교구연합모임후 이어 개최)
2. 장 소 : 갈릴리홀
3. 강 사 : 한완상 장로
(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4. 주 제 : "21세기를 향한 북방선교의 방향"



십일조와 하나님의 축복

(말 3:8-10)

신 성 중

〈목사, 당회장〉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설교제목은 지옥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 또 십일조에 대한 설교 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있는 설교제목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에 관한 설교요, 위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금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인기없는 설교 중에 하나인 십일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처럼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란 점에서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하고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설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일조 생활입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십일조 생활을 잘하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십일조 생활을 잘하면 물질관리도 잘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십일조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십일조란 십분의 일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파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던 조카 롯과 그의 가솔들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얻은 전리품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주었던 것에서 유래됩니다(창 14:17-20).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십일조가 있습니다.

(1) 일반적 십일조 :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입니다(민 18:21).

(2) 수확을 기념하여 절기 때 드리는 십일조가 있습니다(신 12:17-19).

(3)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십일조가 있습니다(신 26:12-13).

2. 왜 그리스도인들은 십일조를 드려야 하나요?

많은 신자들에게 십일조는 하나의 위협이요 두려움인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거두기 위해서 율법을 끌어들이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설교는 안하고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십일조가 교회의 재정적 문제해결의 열쇠인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영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란 것도 알아야 합니다.

(1) 십일조에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나는 다만 관리자일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생활이 바로 십일조 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라, 너희에게 온 세상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아니라 다만 관리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징적 과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과시입니다. 자궁이요,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2) 그런데 왜 어떤 신자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습니까?

십일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첫째로 십일조는 구약의 법이지 신약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 케케묵은 문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롬 6:14)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십일조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십일조의 핵심을 꼬집은 후에 십일조는 의와 인과 신의 맥락 속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십일조를 안합니다.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돈은 내가 번, 나의 것’이란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개서에서도 “온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학 2:8)고 한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내가 번 것이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3) 그러면 왜 모든 신자들은 십일조를 드려야 하나요?

첫째로 십일조는 아디아포라(성경에 꼭 집어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가 주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여 일단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물론 십일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고통이 따를

니다. 그러나 일단 드리면 기쁨이 옵니다. 더욱이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창고는 열지 않고 하나님의 창고만 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3. 어떻게 십일조를 드려야 하나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십일조는 모세 때부터 예수님때까지는 의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즐겨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일조를 내면 보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에게 있어서 제일의 덕목은 정직이란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총수입의 십일조입니까, 아니면 순수입의 십일조입니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공제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수입의 십일조가 원칙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순수익의 10%입니다.

(2) 선교사업이나 다른 곳에 십일조를 내도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 십일조를 바치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일조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우회해서 지나가면 안됩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알아서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도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반드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합니다.

(3) 십일조를 드릴 형편이 못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십일조를 못드릴 형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 십일조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일조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공평하고 가장 합리적인 배려입니다. 사실 십일조를 드리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엽전 두잎만 내면 되는 것이지만 부자들은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수입의 10%는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만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십일조를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4) 경제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십일조를 해야 합니까?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옳고 복이 됩니다.

(5) 십대의 젊은 사람들도 심지어 어린 아이도 드려야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남편만 직장을 가질 때에는 남편만 십일조를 드리지만 그러나 십일조를 배울 최선의 시기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자신이 쓸 수 있는 자신만의 수입에서 훈련을 위해서라도 십일조를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장학금을 받고도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까? 수강료로 지정된 장학금은 수입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의 경우는 십일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퇴직금에서는 십일조를 내야 합니다.

(6) 지금까지 십일조를 못드렸는데 이제부터 십일조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전에 빠뜨린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7) 십일조를 낼 때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까, 무기명으로 해야 합니까?

이름을 기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 헌금은 무명으로 드리는 것이 좋지만 십일조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 네 가지 정신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인의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으로 겸손하게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셋째로 하늘 창고에 저금한다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넷째로 씨를 심는 정신으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 십일조를 드릴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십일조를 석달동안 냈는데 실직했다, 십일조를 내는 날 차가 고장났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 안에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한결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일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가장 주목할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구약의 말씀으로 흘려보내면 안됩니다. 지금도 주십니다.

십일조를 드리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말라기서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그 강한 도전의 말씀은 십일조의 축복이 영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12절에 나타난 십일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일곱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문들이 열립니다. 둘째로 우리 삶 가운데 쏟아부어집니다. 셋째로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집니다. 넷째로 황충을 금하실 것입니다. 강도, 도둑, 사기꾼, 질병, 화재, 재난 등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토지의 소산, 즉 사업의 결실을 실패없이 수확하게 하십니다. 여섯째로 포도나무, 즉 우리의 모든 수고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일곱째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복되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십일조는 하나님의 보장된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5.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십일조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별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낸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일조 생활을 하십시오. 축복의 자리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란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십일조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면 석유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 선생님께 배운대로 십일조 생활을 했습니다. 8살 때 자기가 얻은 20센트 중에서 2센트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받으면 잊지 않고 꼭꼭 십일조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1882년에 석유티러스트를 결성했을 때에도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석유왕이 되어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묻자 그는 망설임없이 ‘십일조를 바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0-4403에서 신성종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 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최첨단으로 발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하여야 할 것인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첨단인 모든 기기들을 사용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속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활용하여 전도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손에 잡혀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가정에 있는 전화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전화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사이는 핸드폰까지 등장하여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는 닫혀진 집에도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무리 문을 닫아놓아도 전화로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

려진 전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1. 총현의 소리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전화(총현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5분 메시지와 매일 교회에서 발행되는 총현의 만나를 전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주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금주의 성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현의 만남은 오늘의 성경말씀을 읽고 상고할 제목과 만나내용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기도를 하고 찬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금주의 성시도 성도들의 시와 기독교 문인들의 성시를 찬양 반주와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 매일 혼자서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병원에서, 어느 장소에서든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 현

장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러한 영의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총현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서 전화번호 700-4403를 누르면 항상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안 내가 나옵니다. 안내를 따라서 자신이 듣고 싶은 번호를 누르면 네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총현의 소리 구성

1. 오늘의 말씀
2. 총현의 만나
3. 금주의 찬양
4. 오늘의 성시
3. 총현의 소리를 어떻게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총현의 소리를 소개함으로 먼저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접할 수 있게 합니다. 총현을 소리를 듣게 하고 들은 후에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여 대화를 하며 교회로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4. 총현의 소리로 앞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

총현의 소리는 앞으로 상담(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내하는 프로그램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기를 활용하여 은혜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토막소식

◆ 찬양위원회(위원장 김은호 장로)에서는 II부 예배시에도 찬양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기 위하여 II부 예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 단원 자격은 관현악 전공자로 세레 교인이어야 하며 학생도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입단원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찬양위원회는 성탄축하 '메시야' 연합찬양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와 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오후 6시부터 각 파트별 연습과 전체 찬양연습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12월 23일(금)에 연주할 예정이다.

◆ 임마누엘 찬양대는 12월 24일, 조별 중창대회를 가지고 친교와 교제를 풍성히 할 계획이다.

◆ 영아부는 십계명 외우기 대회를 한 결과 입상자를 발표했다.

· 사랑반 : 1등 - 송유정, 2등 - 이영찬, 3등 - 김정은 · 장려 : 조인정, 박예음, 조성은, 송나경, 염인지, 김예지, 강서현
· 소망반 : 1등 - 안은진, 2등 - 조수빈, 3등 - 강지혜 · 장려 : 채은빈, 이미나, 이영선, 이예찬,

이정민

◆ 초등2부와 3부는 오늘 4학기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 초등4부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수집한 과일을 혜심원(고아원)에 전달했다.

◆ 초등5부는 오늘 4학기 성경고사를 실시한다(범위는 40-49과)

◆ 중등2부는 중등2부 기도후원 선교사인 서만수 선교사에게 보낼 성탄선물을 수집하고 있다.

◆ 중등3부는 지난 주일 학부모초청기도회를 은혜스럽게 가졌다. 또한 추수감사절 과일 콘테스트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 고등부는 장소관계로 몇 주에 걸친 총회를 지난 주 면려회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마쳤다. 회장에는 한준혁, 부회장에 이은혜가 선출됐다.

◆ 대학부는 95년도 새로운 교회학교 학습 팀을 구성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내년도에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대학부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 청년1부는 내년도 성경공부 일정을 정하고 이를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다.

◆ 장년3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성경퀴즈대회를 오늘 실시한다. 범위는 이사야서 전 장과 로마서 1-6장.

◆ 새가족위원회 양육부는 금년도 마지막 교사월례회를 12월 3일(토) 오후 3시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 : 건강주신 것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붙들린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 신성종 목사 : 맡겨진 사명이 중대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맡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더해주시고 시대적인 말씀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2. 총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청지기적 불질관을 갖게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일조와 헌신의 생활을 생활화하게 하시고 물질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3. 각 교구별로 구성되는 전도회 각 지회들을 지켜 주시사 선출된 임원들이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전도회를 통해서 교구와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4. 길림성 기독교신학원의 건립과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사 이 일을 통해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5.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께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안목을 주시사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는 과감히 뿌리 뽑게 하시며 장로님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에 교회에서 가졌다.

◆ 에바다부는 지난 주일 그동안 공부해온 수확교육을 마쳤다.

◆ 사랑부는 주일에 사랑부 학생들을 도와 운행을 담당할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다.

할

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아울러 날마다 기도로 밀어 주시며 후원하여 주시는 총회의 온 성도들과 선교 동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선교소식 전하여 드리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선교지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는 지난 10월 10일 1994-95 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새 학년도 개학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28명의 신입생이 새로이 입학하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금년에도 교회성장학을 가르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클라스에는 총 3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학생 19명과 야간 학생 15명이며 그중에서 약 절반이 수단인 학생들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애굽에서 유일한 개신교 정규 신학교인 것으로 초교파적입니다. 저희 클라스 학생들 가운데에는 애굽 복음주의 교단 학생들을 비롯 오순절 계통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감리 교회, 성공회, 수단 장로교회 출신 등 매우 다양합니다. 저들 수단인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면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후원교회들과 선교동역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년 간에 걸쳐서 공사해온 기숙사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학년도부터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카이로 한인교회의 자매교회인 마가 지역의 K교회를 비롯, 델타지역의 개척교회인 D교회, 카이로의 위성도시인 H시에서 개척중에 있는 M개척교회 그리고 카이로 변방 피라밋 지역의 T교회와 O교회 그리고 넝마주이 마을의 Z교회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의 E교회 H교회 S교회 등 개척교회들과 지교회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꾸준한 부흥과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자라에브

넝마주이 마을의 Z교회는 교회당 건축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



없이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이로 시내에 있는 교회들, 애굽 복음주의 교회들을 비롯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 한인교회에서는 지난 9월, 한 달을 종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한 달 동안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10월 6-9일까지 나흘동안 십령부흥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온 교우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귀한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충동지역의 회교권에 있는 한인교회의 역할은 한인들의 복음화 차원 이상입니다. 회교권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 한국총합선교관 건립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선교관 건립 계획입니다. 총 건평 724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이곳을 통하여 애굽 현지인 목회자 재훈련, 평신도 지도자, 주교 교사 훈련 그리고 수단인 선교, 의료선교, 유아 교육 등을 이 선교관을 이용하여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29일에는 카이로 한인교회 제직 몇분들과 함께 넝마주이 마을의 개척교회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중인 교회당을 돌아보았으며 넝마주이 마을의 교우들을 위한 의류 460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한인교회에서는 얼마전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있는 교인 K씨를 위한 특별구제헌금도 전달하고 의식회복과 완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지난 달 10월 하순 뜻밖에 내린 폭우, 50년만인 '폭우'라고 합니다. 이 폭우는 인하여 수백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아슈트 지역에는 온 동태가 불마다가 된 곳도 있고 게다가 누전으로 인하여 기름탱크가 폭발 그로 인하여 2백명 이상이 생명을 잃은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사람과 애굽 선교를 위한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선교사 이준교 목사 드림

애굽 / 이준교 선교사

수년 간에 걸쳐서 공사해온 기숙사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학년도부터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 신학교에서 강의 중인 이준교 선교사

때 특별히 감사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의 몇 교회들도 지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교회에 초빙 받아가서 행하는 교회를 중심한 선교사역은 전과 다름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의 주일 낮 예배, 저녁 집회 그리고 주간 집회 등에 초빙받아 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옥외 집회, 개인 전도 등에 방법으로 금지된 회교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를 통한 설교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도 기도하여